

# 안전점검의 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총력

### 도, 안전교육·안전사고 예방요령 홍보·농기계 점검 수리 등 진행

영농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당국이 발벗고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14일 진안군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테마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도, 진안군,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100여명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을 개최했다.

먼저, 진안군청 강당에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진안 장날을 맞아 군민들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요령을 홍보했다.

이어 지난 2월 22일에 기업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맺은 농협 중앙회전북본부와 대동농기계 대리점, 진안군 농업기술센터가 합동으로 노후 및 고장난 농기계 점검, 수리를 지원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행사장에 농기계 사고사진을 전시해 농기계 사고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농기계 안전사고는 연 평균 37.7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36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농기계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어 교통사고시 사망률이 10% 정도로 일반차량에 비해 7배 이상 높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농기계 농작업 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경운기와 트랙터 사고가 전체 농작업 사고의 80%를 차지하며,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미숙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88%로 음주운전 금지 등 운전자 스스로의 주의와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점검의 날'은 1994년 성수대학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1996년 4월 4일부터 매월 4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점검의 날에 기관, 단체, 기업 등 참여가 확대돼 안전문화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며 "바쁜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이 늘고 있지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꼼꼼한 점검, 정비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도내 공무원 지방분권 교육

전북도는 17일부터 이틀간 전북공무원교육원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이해과정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지방분권 교육은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 등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우수대 이병렬 교수와 지방분권개헌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한국지방경영연구원 이수만 원장 등의 전문가들이 지방분권의 이해와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지방분권 성공사례를 통해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기안전 체험유지력**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혁신도시 본사 새물림홀에서 지난 14일 2017년도 전기안전 체험유지력 시범 공연을 펼쳤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날 시범공연에 전북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200여 명을 초청해 전기안전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선보였다.

## 새만금청, 일·가정양립 근무혁신

새만금개발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 분위기를 확산하고, 근무시간 내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매주 수,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가급적 초과 근무를 지양하고, 시차 출퇴근제 등 자율적인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과 근무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나가고, 관행적인 초과 근무 행태를 방지하는 등 올바른 공직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인재용 기자

## 도, 파워유저 대상 '진안 게릴라 팸투어' 실시

### 마이산·가위박물관·용담호 탐방... 올해 도내 10회 게릴라 팸투어 실시 예정

전북도는 15일 진안 지역 관광 홍보를 위해 온라인 파워유저를 대상으로 '게릴라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팸투어는 진안의 대표관광지인 마이산을 비롯해 최근 개관한 가위박물관, 그리고 용담호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추진됐다.

지난주 벚꽃이 전국적으로 절정을 이뤘음에도 해발 400미터 이상의 고원지대인 진안은 뒤늦게 벚꽃이 만개해 이날 마이산과 용담호 주변은 연분홍 벚꽃으로 둘러싸여 팸투어 참가자들에게 봄을 만끽하게 했다.

이번 게릴라 팸투어는 입실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한 것으로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 전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남원, 익산, 부안, 순창, 무주, 군산, 고창 등을 대상으로 약 8회의 게릴라 팸투어를 더 실시할 예정이다.

게릴라 팸투어는, 관광지 정보를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최근의 여행패턴에 맞춰 SNS 등 온라인에 접라북도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팸투어 형태다.

전북 외 거주자로 SNS 친구수 100명 이상, 블로그 누적 방문자 5,000명 이상이거나 회원수 1만명 이상인 카페 운영자 등 온라인상에서 활발한 활동

을 하는 파워유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팸투어 실시 후 1주일 안에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

이날 진안을 처음 와봤다는 한 참가자는 "진안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와보니 참 정감이 가고 고원지대의 깨끗한 공기와 흥삼, 탐사 등의 기운을 받아 힐링이 되는 것 같다"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진안을 많이 홍보할 것이며 SNS에 아름다운 진안의 사진 및 느낌 등을 성심성의껏 올려서 제 글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진안에 대해 호감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 지진대책 자문회의 개최

전북도는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용역과 함께 '지진대책 자문단'을 운영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14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전북 지진대책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단 회의는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이 주재하고,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 등 민간 지진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지진대책 자문단 회의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자문과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전라북도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는 "이번 자문회의는 도내·외 민간분야 지진전문가들이 모여 도내 지진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자문위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는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지진대책 자문단을 수시로 개최해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의 방향 정립과 기 수립돼 추진 중인 '전라북도 지진방재 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에 지진대책 자문단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지진 취약지구 선점과 지진방재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마련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경진원,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 창업지원

### 28일까지 20명 모집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도와 함께 지역 내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을 육성하고자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지역 혁신 프로젝트 '공유경제 Start-Up 6단계 패키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창업 지원으로 이달 28일까지 모집 중이며 모집 인원은 총 20명이다.

또한 교육 이수자 중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템 창업 예정 8명(팀)에게 초기 창업 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공유경제 Start-Up 6단계 패키지 지원' 사업은 내달 15일부터 8일간 4시간씩 창업기본교육과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과정으로 경진원에서 진행된다.

공유경제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이를 검증하고 구체화하고 사업화로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들을 교육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또한, 1:1 멘토링을 통해 교육과 사업화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경진원 담당자는 "공유경제는 활용되지 않은 유류 자원을 사람들과 공유해 불필요한 소비와 자원 낭비를 줄이고 사회 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런 만큼 전북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공유경제 비즈니스모델 창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http://www.jbt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전북 로컬푸드, 공공급식으로 공급 확대

전북도는 14일 로컬푸드 급식 식재료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조정회의를 송하진 지사 주재로 개최했다.

정책조정회의에는 도청 실,국장과 로컬푸드·학교급식지원센터, 기관 위탁급식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삼라농정의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한 도내,외 단체급식 식재료 공급,연계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북도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지역 간 원활한 교류를 위해,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권역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가공품을 학교급식에 시범 공급하고, 지역 내 다양한 농식품 조달체계에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공급 역량을 갖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공공급식에 전북산 농식품을 공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단체급식에 도내 농산물을 직거래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